

남북한문학에 나타난 마산의거의 실증적 연구

이 순 욱*

차례

1. 들머리
2. 마산의거와 우리시
3. 마산의거와 북한시
4. 마무리

1. 들머리

4월혁명은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의해 억압된 집단 기억 가운데 하나이다. 혁명 1주년 이후 거의 모든 문학인들이 침묵과 공허의 은유로서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한 집단적 책무를 망각해 왔다. 4월혁명은 기념식이나 문예지의 혁명기념 기획특집의 자리에서 의례화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침묵과 망각의 메카니즘을 극복하게 된 계기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려는 견고한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식적 기억에 반대하여 대항 기억을 회복하는 일은 집단 망각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투쟁 그 자체이다. 광복기 4·3민중항쟁이나 한국전쟁, 4월혁명, 광주민주화항쟁의 역사화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자장 속에 놓여 있었다

*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연구교수

면, 공식적인 역사에 억압된 집단 기억을 발굴하는 일은 동질화된 기억의 균열을 통해서 역사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 위한 지적 노력이라 하겠다. 망각은 결코 치료와 동일시될 수 없다. 따라서 4월혁명에 관한 기억의 재구성과 확장, 재생산이 거듭 요구되는 것이다.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정당성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4월혁명 직후 발행되었거나 제작된 영화¹⁾, 기념시집²⁾이나 수기집³⁾, 소설⁴⁾, 추모집⁵⁾, 투쟁사⁶⁾, 화보집⁷⁾ 등에서 드러난바, 1960년 당시의 관심은

- 1) 『동아일보』 1960년 7월 18일자 3면 하단 광고에서는 “제작 방대훈, 편집·감독 한형모”라는 기사와 함께 장편실록영화 『四月革命』을 소개하고 있다.
- 2) 발행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시인협회 엮음, 『뿌린 피는 永遠히』(서울:춘조사, 1960.5.19); 정천 엮음, 『힘의 宣言』(부산:해동문화사, 1960.5.30); 김종윤·송재주 엮음, 『不滅의 旗手』(서울:성문각, 1960.6.5); 김용호 엮음, 『抗爭의 廣場』(서울:신홍출판사, 1960.6.10); 이상로 엮음, 『피어린 四月의 證言』(서울:연학사, 1960.6.10); 교육평론사 엮음, 『學生革命詩集』(서울:효성문화사, 1960.7.10); 이평락·서정권 엮음, 『추억의 혁명』(서울:연합신문사, 1961.4.19). 시뿐만 아니라 수상과 일기, 추도문까지 수록한 『피어린 四月의 證言』을 제외한 5권의 시집이 7월안에 발행되었다. 이를 통해 당대 혁명시의 현장성을 엿볼 수 있다. 부산에서 경남 부산지역 문인들의 시를 묶은 『힘의 宣言』이나 서울에서 발행했으나 대구 지역에서 주도한 1주년 기념시집 『추억의 혁명』은 4월혁명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각별하다.
- 3) 이강현 엮음, 『民主革命의 발자취』(서울:정음사, 1960.7.10); 강효순, 『四·一九革命 鬪士의 母 李桂丹女史의 手記』(서울:도덕신문사, 1960.12.28)
- 4) 조정식, 『4·19의 별』(신생서점, 1960).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동아일보』 1960년 7월 27일자 1면 광고 하단을 보면 “4·19의거와 애정의 비극, 학도의거의 실명소설”이라는 책 광고가 실려 있다.
- 5) 이회재 엮음, 『四月에 핀 꽃』(서울:민중서관공무국, 1960.12.1). 4월혁명 당시 희생된 경기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종량의 작품과 조사, 애도사 등을 실고 있다. 엮은 이는 고인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봄·밤·별』(경향신문사, 1960.7.1)은 4월혁명의 와중에서 순국한 안종길의 유시집이다. 각 지역에서 이런 류의 책자가 적지 않게 발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6) 현역일선기자동인 엮음, 『四月革命-學徒의 피와 勝利의 記錄』(서울:창원사, 1960.5.15); 김재희 엮음, 『青春義血』(광주:호남출판사, 1960.6.10); 안동일·홍기범, 『奇蹟과 幻想』(서울:영신문화사, 1960.6.13); 변광도 엮음, 『民主革命 馬山 勝利의 記錄』(마산일보사, 1960.7.1); 조화영 엮음, 『四月革命鬪爭史』(서울:국제출판사, 1960.7.25); 지현모 엮음, 『馬山の 魂』(한국국사연구회, 1961.4.23). 이 가운데 『青春義血』이 광주의거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마산의거를 다룬 두 권의 책자를 통해 마산의거의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히 폭발적이었다. 신문 잡지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추모집이나 투쟁사, 화보집에도 혁명문학작품을 수록하고 있어 결코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다. 북한문학에서는 4월과 6월에 걸쳐 시와 소설, 정론, 수필 등을 신문 잡지매체에 두루 수록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또한 관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한다. 물론 일본 내 신문 잡지매체를 비롯한 문학매체에서 표출했을 4월혁명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미 1960년 8월 들어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에서 『血の四月』이라는 항쟁사를 발행하였다. 여기에는 남한에서 신문매체에 발표된 시⁸⁾를 비롯하여 혁명참가자와 유족들의 수기, 일기, 유서, 편지들을 수록하고 있다. 중국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⁹⁾ 그만큼 4월혁명은 국제적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4월혁명 이후 당대의 관심과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1960년에 양산된 문학적 성과는 피의 대가에 걸맞지 않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반응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사회운동사 관련 서적을 제외하고, 문학 쪽에서 본다면 신경림의 『4月革命紀念詩全集』(학민사)이 1983년에 나왔으니 민주혁명문학의 의의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셈이다. 이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자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문학 지형의 형성, 4월혁명 이후 예술이 국가화의 기획 속으로 재편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화가 진전되던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

7) 『民權鬪爭-民主革命的 歷史的 記錄』(『동방사진뉴스』 제180호, 서울:동방사진뉴스사, 1960.5.23); 『民主革命은 이렇게 이루어졌다』(서울:주간교육신문사, 1960.5); 『民主革命的 記錄』(서울:동아일보사, 1960.6.1); 『4月革命 勝利의 記錄』(대구:경북상공안내사, 1960.7). 이러한 화보집에도 혁명시들을 수록하고 있다.

8) 강명희(수송초등학교 4학년), 윤권태(마산상고 3학년), 고순희, 이원수, 한경자(남대문초등학교 4학년), 김선현, 최옥자, 주소천, 양상경, 신현경 등의 시를 일본어로 옮겨 실었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엮음, 『血の四月』(동경:조선청년사, 1960.8.15)

9) 『南朝鮮人民憤怒의 火焰』(조선·평양:외국문출판사, 1960.4). 이 책에는 마산의거를 지지하는 군중대회에서 마산시민에게 주는 「給馬山市民的의信」(49~52쪽)이 수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조선문학』 1960년 6월호에는 중국시인 류란산의 시 「산악들도 분노에 떠다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에게」를 번역하여 실고 있어 당시 중국의 관심과 반응을 짐작할 수 있겠다.

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다.

최근의 4월혁명문학 연구 또한 대상이나 갈래에서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1960년대 문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슬쩍 끼워 넣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문학에 대해서는 아예 눈길을 주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시기 4월혁명을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성과¹⁰⁾가 있으나 이미 정형화된 연구들과 방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정 작가론 중심인데다 소설에서는 김승옥과 이문구, 현기영을, 시에서는 이성부, 조태일, 김지하를, 비평에서는 염무웅, 김현 등의 명망주의 작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가장 폭이 넓었던 혁명 당시의 민주문학, 특히 수기를 포함한 증언문학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말았다. 혁명문학의 도식성과 주제의 단순성, 대상 텍스트의 빈곤, 단일한 접근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루 알다시피 4월혁명은 광복 이후 가장 뚜렷한 사회변혁운동이며, 우리 현대문학사에서도 민주혁명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특히 마산의거는 4월혁명의 도화선이자 투쟁의 형태와 방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디딤돌이었다. 그런데도 지역운동사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 경향에 비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성과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¹¹⁾ 이것은 마산의거를 독자적으로 다루지 않고 4월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왔기 때문이다.¹²⁾

10) 최원식·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창작과비평사, 2002)

11) 이성모, 「3·15義學詩혁의 精神史」, 『三·一五義學』 제7호(3·15의거기념사업회 엮음, 불휘, 1999), 67~92쪽.; 김윤식, 「4·19혁명에 대한 『지금 마산은』의 의의」,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을』(3·15의거기념사업회 엮음, 불휘, 2001), 437~453쪽.; 김경복, 「3·15의거와 민족저항시」, 『서정과 현실』 제4호(도서출판 작가, 2005), 56~76쪽.; 구모룡, 「3·15시와 기억 투쟁」, 위의 책, 35~55쪽.; 맹문재, 「기록을 거울로 삼는 의로운 시들」, 위의 책, 77~93쪽.

12) 사실상 4월혁명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대구의거만 하더라도 대구의거서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룬 연구가 아예 없다. 그런 까닭에 마산의거를 분리하여 의거서를 독자적으로 묶은 두 권의 시선집은 뜻이 매우 깊다. 변승기 외, 『깃발, 함성 그리고 자유』(도서출판 경남, 1990); 3·15의거기념사업회 엮음, 『3·15의거기념시선집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을』(불휘, 2001)

이 글은 남북한문학에서 마산의거¹³⁾를 노래한 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창작 주체와 창작 현황(매체별, 작가별, 월별)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대상 시기는 1960년 3월부터 1961년 5월 군사쿠데타까지로 한정했다. 1년 남짓한 이 시기야말로 혁명문학의 당대적 성격과 의의, 창작 기반과 창작 열기를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2. 마산의거와 우리시

4월혁명에 전체적인 경험에 비추어 마산의거의 시적 구현은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시기적으로는 혁명 당시, 특히 1960년 4월에서 6월까지 집중되고, 1주년을 기점으로 문학적 관심이 급격하게 소멸되는 과정을 밟는다. 마산의 3·15의거기념사업회나 대구의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보여주듯이, 점점 회미해져 가는 과거의 기억을 환하게 밝히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13) 1960년 당시 언론매체에서는 “마산의거”, “마산사건”, “마산데모”, “마산시위” 등의 용어를 분별없이 사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연구자에 따라 “3·15의거”, “마산 3·15”, “3·15마산의거”, “3·15”, “3·4월 마산항쟁”, “경자마산의거”, “경자년 마산의거”라는 용어를 부러쓰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4월혁명의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마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개별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여 ‘마산의거’라 쓴다. 또한 “4·19”, “4·19혁명”, “4월혁명”, “경자시민의거”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용어의 공공성과 보편성, 상징성을 수용하여 ‘4월혁명’이라 쓰고자 한다.

14) 글쓴이는 마산의거를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으로 노래한 시들, 이를테면, 마산, 3·15, 김주열 등을 시적 소재로 삼았거나 이러한 시어를 함축하고 있는 시들을 모두 마산의거를 노래한 문학적 자산으로 보았다. 이러한 소재주의적 규정은 다분히 마산의거의 독자성을 마련하고 지역의 의거 경험을 투화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문제는 마산의거를 본격적으로 조망한 시편들이 드물고, 대부분 4월혁명문학과의 접친다는 데 있다. 실제로 마산의거와 4월혁명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적 차이 이외에 마산의거의 부차성을 극복하고 4월혁명과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마산의거의 독자적인 이념적 지표와 문학적 전통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를 ‘의거시’, 4월혁명을 노래한 시를 ‘혁명시’라 구분하여 쓴다.

마산 지역에서 2001년 발간된 『3·15의거기념시선집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은 마산의거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혁명문학의 전통을 세우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마산의거는 4월혁명문학의 소재적 원천이다. 의거시는 오늘날까지도 후일담이나 회고담, 기념이나 추념, 저항의 문맥에서 거듭 재생산되고 있지만, 1960년 당시 작품이 현장성을 가장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 1960년 당시 마산의거를 노래한 첫 증언시는 『국제신보』 3월 28일자 2면에 발표된 김춘수의 시이다. 마산의거의 현장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린 시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1)

南城洞派出所에서 市廳으로 가는 大路上에

또는

南城洞派出所에서 北馬山派出所로 가는 大路上에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을,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선연했던 것을...

一九六〇年 三月 十五日

너는 보았는가... 夜陰을 뚫고

나의 고막도 뚫고 간

그 많은 銃彈의 行方을...

南城洞派出所에서 市廳으로 가는 大路上에서

또는

南城洞派出所에서 北馬山派出所로 가는 大路上에서

이였다 끊어졌다 밀물치던

그 아우성의 怒濤를...

너는 보았는가... 그들의애먼 얼굴모습을...

뿌린 핏방울은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선연했던 것을...

—김춘수,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馬山事件에犧牲된少年들의靈前에」

인용시는 마산의거의 경험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린 시로 지역적 개별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교적 의거의 경과와 실상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인용시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반에 생산된 의거시의 발표매체는 신문 매체가 단연 압도적이다. 또한 당시 격변적인 상황 속에서 4월혁명을 기념하는 각종 선집의 출판에 힘입어 각종 신문이나 잡지매체에 수록되었던 의거시가 혁명문학의 성과로 갈무리되었다. 그러나 잡지 매체에서는 뚜렷하게 마산의거의 원형질을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매체별로 창작 현황을 살펴보자.

① 4월혁명기념시집 소재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

지은이	제목	게재지	발행일자	비고
신동문	學生들의 주검이 詩人에게 -아-四月十九日이여	『뿌린 피는 永遠히』	1960.5.19.	전체 39편 수록
이한직	깨끗한 손을 가진 분이 계시거든	"	"	『경향신문』 1960.4.27. 4면.
김태홍	馬山은!	『힘의 宣言』	1960.5.30.	전체 15편 수록 『부산일보』 1960.4.12. 1면.
이주홍	묵은것의 잿더미위에 다시 太陽은 쏟는다-永遠의 感激 四月二十六日	"	"	『부산일보』 1960.5.1. 4면.
최종두	빨래-第二共和國에 부쳐	"	"	『국제신보』 1960.5.12. 4면.
정진업	노래속에 나오는 「니이나」처럼	"	"	『부산일보』 1960.5.5. 4면.
김상호	朱烈君 靈前에	"	"	

김상중	記錄	『不滅의 旗手』	1960.6.5.	전체 73편 수록
김용호	해마다 四월이 오면-모든 榮光은 젊은이에게	"	"	『조선일보』 1960.4.28. 4면
박양균	無名의 힘은 眞實하였다 -四·一九를 前後한 時局에 말한다	"	"	
이철균	四·一九	"	"	
전영경	대한민국 만세	"	"	
조병화	一九六〇年 四月-어린 先烈에	"	"	『조선일보』 1960.4.30. 4면.
이봉운	어머니	"	"	중앙대 국문과
윤권태	鎮魂歌-金朱烈君의 英靈 앞에	"	"	마산고 3년
구 상	鎮魂曲-馬山 희생자를 위하여	『抗爭의 廣場』	1960.6.10.	전체 60편 수록
김용호	해마다 四월이 오면 -모든 榮光은 「젊은 獅子들」 에게	"	"	『조선일보』 1960.4.28. 4면
김춘수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馬山에서 犧牲된 少年들의 靈前에	"	"	『국제신보』 1960.3.28. 2면.
김태홍	祖國이여!	"	"	『부산일보』 1960.4.24. 3면
백기만	吊詞	"	"	
이민영	우리들 이 길을 간다	"	"	
전영경	대한민국 만세	"	"	
정영태	피로 뿌린 씨 來日은 꽃피리	"	"	
조 순	秩序의 隊列로	"	"	『국제신보』 1960.4.27. 4면.
윤권태	鎮魂歌-金朱烈君의 英靈 앞에	『피어린 四月의 證言』	1960.6.10.	전체 75편 수록 마산고 3년 『한국일보』 1960.4.17. 1면.
김춘수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馬山에서 犧牲된 少年들의 靈前에	"	"	『국제신보』 1960.3.28. 2면.
구 상	鎮魂曲-馬山 희생자를 위하여	"	"	
이한직	깨끗한 손을 가진 분이 계시 거든	"	"	『경향신문』 1960.4.27. 4면

윤권태	鎮魂歌-金朱烈君의 英靈 앞에	『學生革命詩集』	1960.7.10.	전체 101편 수록 『한국일보』 1960.4.17. 1면
김창수	자유는 정말 돌아오지 않으 려나?	"	"	마산중 2년
안도섭	누가 막을 수 있었으랴	"	"	
김순현	우리의 太陽	"	"	『조선일보』 1960.5.23. 4면
전영경	대한민국 만세	"	"	
이철균	四·一九	"	"	
이한직	깨끗한 손을 가진 분이 계 시거든	"	"	『경향신문』 1960.4.27. 4면
추재건	흔들림 속에서	『추억의 혁명』	1961.4.19.	전체 47편 수록 경북고 2년

②신문매체 소재(1960.3.1~1961.5.15)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

지은이	제목	게재지	게재연월일	비고
이한직	깨끗한 손을 가진 분이 계시거든	『경향신문』	1960.4.27. 4면.	
김춘수	베꼬니아의 꽃잎처럼이나…… 馬山事件에犧牲된少年들의靈前に	『국제신보』	1960.3.28. 2면.	
정공채	하늘이여……	"	1960.4.14. 1면.	
이영도	哀歌—故金朱烈君靈前に	"	1960.4.19. 4면.	
조 순	秩序의 隊列로	"	1960.4.27. 4면.	
최종두	빨래—第二共和國에부쳐	"	1960.5.12. 4면.	
이동섭	韓國의 脈搏—열다섯 八·一五 前後에 말한다	"	1960.8.16. 4면.	
김태홍	馬山은!	『부산일보』	1960.4.12. 1면.	

홍두표	꽃봉오린채 떨어진 꽃송이들이여 -馬山事件의 銃彈에 쓰러진 學生 들의 靈前에	"	1960.4.13. 4면.	
김태홍	祖國이여!-合同慰靈祭에 붙임	"	1960.4.24. 3면.	426 3면에서 군검열로 삭 제된 부분을 삽입함
이주홍	묵은것의 잿더미위에 다시 太 陽은 쏜는다 永遠의 感激, 四月 二十六日	"	1960.5.1. 4면.	
정진업	노래속에 나오는 「니이나」처럼	"	1960.5.5. 4면.	
육교량	4.19犧牲學生慰靈祭에 부침 -감지 못하는 눈과 눈	"	1960.5.18. 4면.	
윤권태	鎮魂歌-金朱烈君의 英靈 앞에	『한국일보』	1960.4.17. 1면.	
김용호	해마다 四월이 오면 -모든 영광은 젊은이에게	『조선일보』	1960.4.28. 4면.	
조병화	一九六〇年 四月-어린 先烈에	"	1960.4.30. 4면.	
박남수	不死鳥에 부치는 노래	"	1960.5.2. 4면.	
김순현	우리의 太陽	"	1960.5.23. 4면	
전영경	아 사월 십구일	『민족일보』	1961.4.22. 4면	

③ 『마산일보』 소개(1960.3.1~1961.5.15) 4월혁명과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

지은이	제목	게재지	게재연월일	비고
*김행자	吊詞 열입곱 푸른 金朱烈 생 령에	『마산일보』	1960.4.25. 4면	
*이순섭	馬山에서 봄 -民主勝利의 날에	"	1960.4.29. 1면	
*정진업	어머니의 무덤에	"	1960.5.8. 2면	

석 봉	自肅自戒	"	1960.5.16. 4면	시조
석 봉	自我反省	"	1960.5.16. 4면	시조
*석 봉	學生의 大舉	"	1960.5.16. 4면	시조
*석 봉	流血學生의 慰靈	"	1960.5.16. 4면	시조
석 봉	政界諸公에게	"	1960.5.16. 4면	시조
제갈식	순국학생영전에	"	1960.5.23. 4면	
*정진업	東方의 燈燭에 불이 붙었다	"	1960.5.23. 4면	
*김세익	鎮魂歌 學生慰靈祭에 부치는 詩	"	1960.6.4. 2면	
*김성석	네 心臟 가까운 곳에	"	1960.6.13. 4면	
변석두	총소리	"	1960.7.11. 4면	
박노영	革命의 詩	"	1960.7.25. 4면	
이순섭	그날로 돌아가자 -八·一五를 맞이하여...	"	1960.8.15. 3면	
*이광석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八·一五 열 다섯 돌에 부치 는 글	"	1960.8.15. 4면	
*정진업	바리 먹은 당나귀의 차레가 남았다 -미흔두둑 三·一절에 부치는 詩	"	1961.3.1. 4면	
*고석봉	三·一五義舉記念	"	1961.3.5. 4면	시조
*이광석	아직도 우리는 孤獨하다 三·一 五 첫돌에 부치는 글	"	1961.3.15. 2면	
김영일	抗爭의 거리에서	"	1961.3.21. 4면	고등학교
박상석	四月이 와도	"	1961.4.11. 4면	

*정진업	한나무의 葉脉처럼-四·一九 첫뚝에	"	1961.4.19. 4면	
정상돌	四月의 하늘에	"	1961.4.25. 4면	
장하보	頌歌-四月에 쓰여진 學生을 爲하여	"	1961.4.29. 4면	

*는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

도표 ①과 ②, ③을 바탕으로 매체별 작품 편수를 살펴보면 지역 언론 매체인 『마산일보』에 수록된 의거시가 가장 많다. 의거 경험의 지역적 개별성과 고유성뿐만 아니라 관심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통계 결과는 『마산일보』 13편, 『국제신문』 6편, 『부산일보』 6편, 『조선일보』 4편,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민족일보』가 각각 1편씩이며, 『동아일보』에서는 마산의거를 재현한 작품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각별히 주목되는 것은 『마산일보』에 발표된 의거시이다. 표 ③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1960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이 매체에 발표된 작품 수는 134편을 헤아린다. 이 가운데 24편이 4월혁명과 관련이 있으며,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는 13편을 넘지 않는다. 학생 위주의 투고작들이 많다 하더라도 의거 기간 동안 발표된 작품 수는 중앙지나 지역지인 『국제신문』·『부산일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마산이 의거의 중심이자 진원지였다면 점을 상기한다면 3월 15일을 앞뒤로 한 40여일과 김주열의 시체가 떠오른 4월 11일 이후 약 보름 정도 동안 지역민이나 지역시인들이 신문매체를 통해 마산의거의 경과나 의의를 잘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2)

당신의 억울한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四月은 잔인한 달이라는
어느 시인의 말을 듣고

자꾸만 그날이 되살아 오릅니다.

-(가운데 줄임)-

당신은 언제나
푸르런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김행자, 「吊詞-열입곱 푸른 金朱烈 생령에」 가운데서

『마산일보』에 수록된 첫 의거시이다. 결코 헛되지 않은 죽음의 의미와 함께 의거정신의 영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승리의 기억으로 갈무리하려는 의지를 담아내었다. 마산의거뿐만 4월혁명에서 김주열의 죽음이 지니는 무게와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 시가 4월혁명이 막바지에 이른 4월 25일에 발표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때는 이미 전국적인 차원에서 항쟁이 무르익었던 시기이다. 그만큼 지역 안쪽에서는 2차 마산의거의 기폭제가 되었던,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의 비극적 죽음을 항쟁의 중심적 사건으로 격상시키고 혁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이끌어내는 일에 소홀했던 셈이다.

(3)

馬山은

고요한 合浦灣 나의 故鄉 馬山은

씩은 답사리 비치는 달그림자에
抒情을 달래는 傳說的 湖畔은 아니다

봄비에 눈물이 말없이 어둠속에 피면
눈동에 彈丸이 박힌 少年의 屍體가
대낮에 漂流하는 埠頭—

學生과 學生과
市民이

<戰友의 屍體를 넘고 넘어->
民主主義와 愛國歌와

목이 말라 온통 설레는 埠頭인 것이다.

—김태홍, 『馬山은!』 가운데서¹⁵⁾

인용시 (3)에서 알 수 있는바, 마산 출신의 김태홍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少年의 피”가 “움직이는 世界”이자 “氣象圖”라 규정하였다. 마산의 현실을 직시한 발 빠른 반응이자, 일종의 예언자적 전망을 담고 있다. 그런 까닭에 김주열의 죽음을 계기로 그의 고향 마산은 “世界로 通하는 埠頭”, 그러니까 4월혁명을 추동한 혁명의 성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셈이다.

다음으로 월별·시인별 작품 창작 편수를 살펴보자.

【시인별 작품 편수】

정진업 5 고석봉(석봉) 3 김태홍 2 이광석 2 전영경 2
구 상 1 김상중 1 김상호 1 김성석 1 김세익 1 김순현 1
김용호 1 김창수 1 김춘수 1 김행자 1 박남수 1 박양균 1
백기만 1 신동문 1 안도섭 1 옥교량 1 윤권태 1 이동섭 1
이민영 1 이봉운 1 이순섭 1 이영도 1 이주홍 1 이철균 1
이한직 1 정공채 1 정영태 1 조 순 1 조병화 1 최중두 1
추재건 1 홍두표 1

【월별 작품 편수】

1960년 3월-1 1960년 4월-12 1960년 5월-11 1960년 6월-11
1960년 7월-2 1960년 8월-1 1960년 9월~2월-0
1960년 3월-3 1961년 4월-3

15) 『국제신문』 1960.4.12. 4면.

창작 계층을 살펴보면, 전문시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당시 의거를 경험했던 지역민이나 학생 계층이 뒤를 따른다. 이들은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 혁명문학선집이나 당시 신문 매체의 문학 지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을 생산한 창작 주체이기도 하다.

또한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인으로는 정진업이 5편으로 가장 많다. 주로 행사시나 기념시의 형태로 4월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마산의거를 그리고 있었다. 정진업 외에 이 지역에 연고를 둔 시인으로는 김태홍, 김광석, 김세익, 김용호, 김춘수, 이영도, 이석(이순섭), 조순, 홍두표 등이다. 이주홍, 정영태, 이동섭, 정공채 또한 경남 출신이다. 고석봉과 김행자는 지역민으로 보이며, 윤권태와 김영일이 이 지역 학생이다. 각별히 대구지역의 박영균, 백기만, 이민영도 대구의거를 언급하면서 마산의거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창작월별 작품 편수는 단연 1960년 4월과 5월, 6월에 집중된다. 두루 알다시피 4월혁명시는 4월중후반부터 5월 초순까지 각종 신문매체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6월에 창작 편수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단행본 기념시집 매체의 발간과 관련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의거시의 밀도는 줄어들거나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¹⁶⁾ 결국 의거시는 1주년을 맞아 단발적인 관심을 표출하는 선에서 정리되고, 1961년 이후부터는 각종 기념식이나 추모식에서 의례화되는 과정을 밟는다.

3. 마산의거와 북한시

북한문학사에서 광복기부터 1967년 주체시대의 문학에 이르는 시기는 카프 계열과 북한출신 작가들의 갈등으로 인한 세대교체와 당파성·당성 논쟁으로 격변을 거듭하였다. 비교적 평온을 되찾은 1960년대는 이른바 천리마 시대의 문학(1958.9~1967.5)에 해당한다. 수령 형상의 창조, 사회주의

16) 김춘수는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4월혁명 이전의 안일한 자세로 돌아간 결과로 보았다. 김춘수, 「四·一九 以後-詩壇」(上), 『부산일보』, 1960.12.20, 4면.

제도의 수립과 천리마운동의 현실적 특성 반영, 혁명전통주제와 광복 후 인민의 혁명투쟁 형상화, 조국통일의 사상적 지향이 이 시기 “새로운 전환”으로 일컫는 공산주의적 창작기풍이자 핵심주제들이다.¹⁷⁾ 특히 천리마 운동은 생산력을 증강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동원 사업으로, 농촌이나 공장을 무대로 천리마 기수들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문학의 현대성과 진실성을 강화하고 사상 교양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⁸⁾

이 시기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현상은 “반미구국투쟁의 커다란 승리”이자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정책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규정한 남한의 “4월인민봉기”를 형상화한 작품을 활발하게 창작하였다는 점이다.¹⁹⁾

북한에서는 4월혁명이 세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친다고 본다. 산발적인 투쟁이 전개되던 시기(1060.2.28~3.14), 이승만 정권의 전복을 위한 대중적 봉기의 시기(3.15~4.26),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인 자유당 잔당을 숙청하며 통치기관, 폭압기구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의 시기(4.27~5.8)에 이르는 약 70여일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²⁰⁾ 무엇보다도 미국의 식민지 통치와 이승만 정권의 폭압 통치에서 비롯된 모든 사회악과 생활고,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성과가 남한에 끼친 고무적 영향²¹⁾을 4월혁명의 발생요인

17) 김일성종합대학, 「천리마 시대 문학발전의 특성」, 『조선문학사』 4(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3), 159~167쪽.

18) 김일성종합대학, 위의 책, 163쪽.

19) 대표적 작품으로는 “서정시 「소년영웅」(1960, 석광희), 「노도처럼, 격랑처럼」(1960, 이찬), 「마산은 행진한다」(1960, 신진순), 「운쭈들이 바리케트를 쌓고 있다」(1960, 정서촌), 단편소설 「넋은 살아 있다」(1965, 고동은), 「무호섬」(1965, 김수경), 「삶의 길」(1965, 최국명), 「그 길에 노을이 비긴다」(1966, 오선화), 중편소설 「첫시련」(1965, 전주설), 장편소설 「폭풍의 역사」(1960, 김영석), 영화문학 「성장의 길에서」(1965, 백인준), 희곡 「분노의 화산은 터졌다」(1960, 송영), 「푸른잔디」(1965, 이재룡)을 들 수 있으며, “1960년 4.19봉기를 비롯하여 그후 계속하여 일어난 <한일회담>, <한일협정> 체결을 분쇄하기 위한 3.24, 6.3투쟁 등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그 생활적 기초로 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형상화」, 위의 책, 271쪽.

20) 『애국의 피로 물든 4월의 광장』(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1965), 14~16쪽.

21) 『남조선 학생운동』(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92~93쪽.

으로 본 점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특수한 시각이다.

북한의 4월혁명문학은 우리와는 달리 시뿐만 아니라 정론, 오체르크, 소설, 극문학, 영화문학 등의 모든 문학 갈래에 두루 걸쳐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의 혁명투쟁에서 혁명조직의 의의와 활동, 혁명가들의 선도적인 역할, 사회주의 제도와의 대비를 통한 남한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 폭로, 투쟁의 합법칙성 등을 매우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4.19봉기를 노래한 초기작품들에서는 맨 주먹, 맨 가슴팍으로 원수들의 총칼과 땅크와 바리케트와 맞싸워 독재의 아성을 짓부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 견결한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매우 참여한 극적 상황속에서 전투적이며 정론적인 격조와 시어로 박력있게 감동깊게 노래하였다면 해를 거듭하면서 4.19봉기를 노래한 작품들에서는 그 투쟁정신의 불멸함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 새로운 투쟁에 일떠설데 대한 호소가 절절하고 무게있게 울리고 있는것이 특징적이다.²²⁾

4월혁명문학의 창작 매체 환경을 살펴보면, 신문매체와 잡지매체, 단행본매체에 두루 걸쳐 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신문매체와 잡지매체의 수가 지극히 한정적이어서 혁명문학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월간 『조선문학』과 주간 『문학신문』, 단행본 시집 매체 등을 통해 북한문학계의 4월혁명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²³⁾

22) 류 만, 『현대조선시문학연구(해방후편)』(사회과학출판사, 1988), 147~148쪽.

23) 현재 글쓴이가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목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깊고 더 해야 할 자료가 많다. 특히 통일부 북한문학자료센터에는 1960년에 발행된 『문학신문』 마이크로필름을 소장하고 있지 않아 이 시기는 김성수가 엮은 『북한 『문학신문』 기사목록(1956~1993)』(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에 따랐음을 밝혀 둔다.

① 『조선문학』 소재 4월혁명을 노래한 시

지은이	제목	게재지	게재 년월일	비고
*백인준	그날밤에	『조선문학』	1960.5.	1960.4.15(창작일자)
*정하천	싸워 이기라	"	"	
*리 맥	어머니들이여 싸우러 나아 갑시다	"	1960.6.	
한윤호	원수들은 대낮에 음모를 꾸 민다	"	"	1960.4.
류란산	산악들도 분노에 떠다 —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에 게	"	"	중국 김정식 옮김
전초민	아메리카에 대한 나의 론고	"	1960.7.	
김귀런	항쟁하는 소년	"	"	
김귀런	부산서도 초량	"	"	
리 찬	자랑하노라, 나의 조국	"	1960.8.	
박세영	다시 한 번 인경을 올려라 —남조선 인민이 부르는 노 래	"	"	
*일 심	평양 사람들	"	"	
일 심	어린 정치가	"	"	1960.7.1.
신진순	아들아 곧바로 달려라!	"	"	
*김 철	4월은 북을 울린다	"	1961.4.	
함영기	동래라 해운대는!	"	"	
함영기	부산항에 폭풍이여 번개여!	"	"	1960.12.
*정문향	그대는 또다시 일어섰다	"	1961.5.	
전동우	양키들에게 죽음을 주라	"	1961.6.	
*박산운	개에게는 개값을	"	1961.6.	1961.5.20.

*는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

② 『문학신문』 소재 4월혁명을 노래한 시

지은이	제목	게재지	게재년월일	비고
*김상오	마산이여, 우리는 너와 함께!	『문학신문』	1960.4.15.	
*한진식	투쟁의 불길 더욱 높이라 —마산 인민들에게	"	1960.4.15.	
남시우	남녘땅 시인이여!	"	1960.6.10.	
김상오	불길이여, 폭풍이여 다시 일어라!	"	1961.3.14.	
이원수	동생의 노래	"	1961.3.15.	
*동승태	자유 없는 천지를 불사르라!	"	1961.3.24.	
함영기	또다시 4월의 네거리로!	"	1961.3.31.	
강림석	4월	"	1961.4.18.	
김상오	서울이여 나는 너를 부른다.	"	1961.4.18.	
김소향	영숙이는 살아 있어요 —남조선 소녀의 노래	"	1961.4.21.	동시
*전동우	남조선 청년 학도들에게	"	1961.4.21.	
*류연옥	물결도 웨쳤다	"	1961.6.6.	동시

*는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

③ 기타 단행본 매체 소재 4월혁명을 노래한 시

지은이	제목	게재지	발행일자	비고
석광희	소년영웅	?	1960.4.20.	시집 『결전의 길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81-83쪽
*신진순	마산은 행진한다	?	1960.4.(?)	
정서촌	원수들이 바리케트를 쌓고 있다	?	1960.4.(?)	
리 찬	노도처럼, 격랑처럼	?	1960.4.(?)	
*석광희	김주렬	『남녘땅에 기발 날란다』	1960.9.15.	평양: 아동도서출판사 1960.5.8(창작일자)
류연옥	우리들의 마음도 날개쳐 간다	"	"	
*김경태	달려 가고 싶구나 한달음에	"	"	1960.4.
*우봉준	원수들이 떨고 있다	"	"	
백 하	프랑카드로 총구를 밀고 나가자	"	"	
김동전	싸우라 내 아들이!	"	"	

윤복진	어린 너희들도 나섰구나	"	"	1960.4.25.
최석승	더 힘차게 일어 나라	"	"	1960.6.
*전초민	소년의 꿈을 찾아 주라	『건설의 나날』	1961.1.5.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4.

*는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

『조선문학』 소재 4월혁명을 노래한 19편 가운데 7편, 『문학신문』에서는 전체 12편 가운데 5편, 기타 단행본 매체에서 13편 가운데 5편 정도가 마산이라는 장소와 김주열을 소재로 마산의거를 형상화하고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전체 44편 가운데 17편 정도이다.²⁴⁾

(1)

마산으로, 마산으로!

나의 마음은!

동족들이

피 흘리며 싸우는 그 곳,

형제들이 봉기한 영웅의 거리

-(가운데 줄임)-

《자유를 달라!》

《리승만은 물러가라!》

피타는 그 목소리들,

전파보다 더한

동족의 마음을 타고 들려 오나니—

—백인준, 「그날밤에」 가운데서

몇몇 작품의 끝에 부기되어 있는 창작일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재 복한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마산의거를 노래한 첫 시다. 마산 혹은

24) 이외에도 리정술의 「내 고향 마산의 벼들에게」(『문학신문』, 1962.4.20), 리호일의 「폭풍의 노래」(『문학신문』, 1962.4.20), 한설야, 「그 우에 꽃이 피리-마산 봉기에 부침」(『문학신문』, 1962.6.29) 등이 있다.

김주열의 이미지가 단순히 소재적 차원에서 시의 한 부분으로 작용한 시편들을 제외할 때, 의거시는 인용시를 포함하여 김주열의 어머니를 화자로 내세운 「어머니들이여 싸우러 나아갑시다」와 김주열의 영웅적 투쟁과 죽음을 노래한 「김주열」, 「소년의 꿈을 찾아 주라」, 그리고 혁명의 성소로서 마산과 마산시민들의 투쟁을 노래한 「마산이여, 우리는 너와 함께!」, 「투쟁의 불길 더욱 높이라 마산 인민들에게」, 「마산은 행진한다」 등의 7편이다. 전체 44편 가운데 실질적인 의거시로 볼 수 있는 까닭에, 4월혁명에서 마산의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은 셈이다. 그만큼 마산은 “4월 인민 봉기의 직접적인 도화선”²⁵⁾으로 인식되었으며, 투쟁의 원천으로 작용했던 셈이다. 이는 4월혁명의 투쟁 실태를 지역별로 개관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에 앞서 ‘마산시’를 첫머리에 내세운 점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²⁶⁾

아래 인용시는 김주열의 영웅적 면모보다는 순수성을 전면에 내세운 다음, 남한 민중들에게 “만고 역적 리 승만 괴뢰들을/ 남쪽 땅 우에서 모조리 쓸어 버리라”, “원수를 섬멸하라” 독려함으로써 반독재 반제국주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이를 통해 “꿈 많던 소년” 김주열에게 “아름다운 남해 기슭을 찾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문학의 주류적 경향에서 벗어난 작품은 아니지만, 한결같이 직설적인 구호로 일관한 일반적 경향과는 어느 정도 차별성을 지닌다.

(2)

아름다운 이 나라 남해 바다 우에
금시 벼락이라도 일으킬듯,
검은 구름 뭉게치더니,
어린 소년의 시체 하나
아침 태양과 함께 물 속에서 솟았다.

25) 『애국의 피로 물든 4월의 광장』(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1965), 14~16쪽.

26) 위의 책, 16~21쪽.

노한 물결을 타고,
햇살을 감아 쥐며
물으로 물으로 떠오른 소년

그는 아직 어머니 사랑도
다 받지 못한 꽃나이
갈매기 날아 예는 부둣가에서
하늘이라도 날고 싶던 꿈 많은 소년.

저기 동무들과 뛰놀던 거리가 그리워,
진달래 꺾는 봄동산이 그리워,
물으로 물으로 찾아 왔거니,

이렇게 뛰놀고 싶은 소년을,
이렇게 꿈 많은 소년을,
어떤 놈이나, 산 채로 바다에 던진 것은—

바람 부는 부둣가에서
어머니는 전설의 녀신처럼
아들의 시체 머리 위에 높이 쳐들고,
어린 날 금자동아 은자동아 키우던 사랑

—주렬아 - 목메여 목메여 부른다

—전초민, 「소년의 꿈을 찾아 주라」 가운데서

창작계층을 살펴보면, 북한의 혁명시는 전문 시인 중심으로 교조적인 내용과 수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창작의 빈도는 1960년 4월~6월 12편, 1961년 3월에서 6월 14편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물론 창작일자를 고려하면 1960년 4월에 창작된 작품 수가 11편으로 단연 압도적이다. 또한 하위갈래에서는 동시가 9편에 이르는 까닭에 이 시기 북한 아동문학계의 지향과 계몽적 의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별로는 강림석 1편, 김귀련 2편, 김동전 1편, 김경태 1편, 김소향 1

편, 김상오 3편, 김철 1편, 남시우 1편, 동승태 1편, 류연옥 2편, 박산운 1편, 박세영 1편, 백인준 1편, 백하 1편, 석광희 2편, 신진순 2편, 이맥 1편, 이찬 2편, 일심 2편, 우봉준 1편, 윤복진 1편, 전동우 2편, 전초민 2편, 정문향 1편, 정소천 1편, 정하천 1편, 최석승 1편, 한윤호 1편, 한진식 1편, 함영기 3편이다. 각별히 중국의 류란산 시를 통해 중국문학계에서 4월혁명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월혁명에서 마산이 차지하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 시기 박산운을 제외하고 경남지역 출신 시인들의 작품 수가 많지 않다는 사실도 짚어둔다.²⁷⁾ 남한에 거주어 지역적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월혁명을 노래한 북한시에서는 남한과는 달리 증언시나 상황시, 진혼시 유형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일차적으로는 신문매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혁명의 전개 과정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²⁸⁾ 나아가 단순한 추념이나 애도에 치중하지 않은 까닭은 북한체제의 우위성을 안팎으로 선전할 수 있는 기회이자 주민들의 혁명정신을 고양시킬 교양 사업의 일환으로 여겨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전면화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남한사회의 반인민적인 실정을 폭로하거나 투쟁에 나선 시민들의 영웅적 행동과 투쟁 의지를 중점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러한 의도를 명백하게 관철시키고 있는 편이다. 이를 통해 혁명만이 조국통일을 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27) 박산운은 (정론)「남반부의 한 시인에게」(『문학신문』, 1962.4.3)를 비롯하여 「4.19의 이름으로」(1963-창작일자), 「서울 시민들에게」(1964), 「잊을 수 없는 사람들」(1989)을 「내가 사는 나라」(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133~135쪽, 136~137쪽, 106~107쪽)에서 지속적으로 노래하였다. 엄홍섭은 (정론)「용감히 뛰어들라!」(『문학신문』, 1960.4.22)를, 김상훈은 「4.19의 노래」(1965)(『흙』, 문예출판사, 1991, 127~132쪽)를 발표하기도 했다.

28) 남한의 신문매체에 발표된 이원수의 시 「아우의 노래」를 「동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손질하여 처음으로 수록한 매체는 1961년 3월 15일자 『문학신문』이다. 「애국의 피로 물든 4월의 광장」(1965)에서 지역별 투쟁의 실태와 김주열을 위시하여 22명의 민주열사들의 이력을 평전 형식을 빌어 소상히 기록하고, 강명희의 시 「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나요?」와 김주열의 일기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60년 당시에는 4월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4. 마무리

4월혁명은 광복 이후 가장 뚜렷한 사회변혁운동이며, 우리 문학사에서 혁명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특히 마산의거는 4월혁명의 도화선이자 항쟁의 형태와 방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른바 혁명문학의 주요한 창작동기를 부여한 거점이 바로 마산이다. 이 글에서는 1960년 3월부터 1961년 5월까지 남북한문학에서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를 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마산의거의 독자성을 규명하고 4월혁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첫째, 마산의거를 노래한 시의 발표 매체는 『마산일보』, 『국제신보』, 『부산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의 신문 매체가 압도적이었다. 신문이나 잡지 매체에 수록되었던 이러한 시편들은 이후 4월혁명을 기념하는 각종 문학선집의 출판에 힘입어 혁명문학의 성과로 갈무리되었다. 반면, 이른바 천리마 시대의 문학에 해당하는 북한문학에서는 신문 잡지 매체의 수가 지극히 한정적이어서 혁명문학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폭넓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기동성과 공공성을 지닌 신문매체인 주간 『문학신문』과 잡지매체인 월간 『조선문학』이 주요한 발표 공간이었으며, 단행본 시집 매체에서도 마산의거의 성과를 갈무리하고 있었다.

둘째, 창작 계층을 살펴보면, 전문시인이 많고 당시 의거를 경험했던 지역민이나 학생 계층이 뒤를 따른다. 이들은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 혁명문학선집이나 당시 신문 매체의 문학 지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을 발표한 창작 주체였다. 반면에 북한문학에서는 마산의거의 창작 주체가 주로 전문시인이었다.

셋째, 우리의 경우 창작월별 작품 편수는 단연 1960년 4월과 5월, 6월에 집중된다. 6월에 창작 편수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단행본 기념시집 매체의 발간과 관련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혁명시의 밀도는 줄어들거나 아예 관심

29)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4월혁명의 실패 원인을, (1)혁명적 당과 명확한 투쟁 명령의 부재, (2)학생 중심의 비조직적 전개(노동자·농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지 않음), (3)반제 반봉건 투쟁과 미결부, (4)유혈적인 탄압과 진압 등을 들었다. 『남조선 학생운동』(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105~106쪽.

밖으로 밀려났다. 결국 4월혁명 1주년을 맞아 단발적인 관심을 표출하는 선에서 정리되고, 1961년 이후부터는 기념시나 의례시로 정형화되는 과정을 밟는다. 그만큼 1960년 당시에 양산된 문학적 성과는 피의 땀가에 걸맞지 않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반응에 그쳤던 셈이다. 북한문학 또한 창작월별 작품수의 분포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남한과 달리 당시 혁명문학선집으로 갈무리된 성과는 거의 없는 편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동문학을 통해 “남조선해방”과 “미제타도”를 효과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데 목표를 두고 1960년 9월 발간된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가 유일하다.

넷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한문학에서는 4월혁명의 연장선상에서 행사시나 기념시의 형태로 마산의거를 그리고 있었다. 마산의거의 경과를 세심하게 다루거나 전체적으로 조망한 시편들이 드물고, 혁명의 의의에 대한 격정적이고 정형화된 의식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반면, 북한문학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특수한 시각을 표출하고 있었다. 주로 반미의식과 남한사회의 부패성 폭로, 혁명투쟁조직의 의의와 활동, 혁명가들의 선도적인 역할, 투쟁의 합법칙성 등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와 달리 단순한 추념이나 애도에 치중하지 않은 것은 북한체제의 우위성을 안팎으로 선전할 수 있는 기회이자 주민들의 혁명정신을 고양시킬 교양 사업의 일환으로 여겨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전면화했기 때문이다.

침묵과 망각의 논리에 맞서 4월혁명과 마산의거의 기억과 경험을 재구성하여 이른바 혁명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이제 당대 문학인들의 몫이다. 기억의 재구성은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는 일이자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지역가치 혹은 지역 정체성을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각종 문학사료를 갈무리하여 혁명문학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해야 하며, 혁명문학을 단순히 현실비판과 고발의 기록으로 보는 미학적 회의주의 또한 극복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마산, 마산의거, 4월혁명, 혁명문학, 증언문학, 남한문학, 북한문학, 실증, 기억, 망각, 기억의 재구성, 기억투쟁.

<참고문헌>

1. 일차 자료

3·15의거기념사업회 엮음, 『3·15의거기념시선집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을』, 불휘, 2001.

김용호 엮음, 『抗爭의 廣場』, 신흥출판사, 1960.

김종윤·송재주 엮음, 『不滅의 旗手』, 성문각, 1960.

박산운, 『내가 사는 나라』, 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변승기 외, 『깃발, 함성 그리고 자유』, 도서출판 경남, 1990.

석광희, 『결전의 길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신경립 엮음, 『4月革命紀念詩選集』, 학민사, 1983

신동엽 엮음, 『學生革命詩集』, 교육평론사, 1960.

이상로 엮음, 『피어린 四月의 證言』, 연학사, 1960.

전초민, 『건설의 나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정 천 엮음, 『힘의 宣言』, 해동문화사, 1960.

진우석, 『4월의 성좌』, 평양문예출판사, 1987.

한국시인협회 엮음, 『뿌린 피는 永遠히』, 춘조사, 1960.

『추억의 혁명』, 연합신문사, 1961.

『學生革命詩集』, 효성문화사, 1960.

『마산일보』, 『민족일보』, 『국제신보』, 『부산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연합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부대신문』, 『고대신문』, 『대학신문』,
『조선문학』, 『문학신문』, 『教育評論』, 『향학』, 『人物界』, 『眞相』, 『새가정』,
『政界財界』, 『議會評論』, 『週刊春秋』, 『대한의학협회지』, 『건대학보』, 『새벽』,
『思想界』, 『현대문학』, 『자유문학』,

2. 이차 자료

3·15의거기념사업회 엮음, 『3·15의거사』, 휘문출판사, 2004.

- 4월의 탑 편찬위원회, 『四月의 塔』, 세문사, 1969.
- 4월혁명동지회, 『4월혁명』, 4월혁명동지회출판부, 1965.
- 4월혁명연구소 엮음,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사월혁명』, 한길사, 1990.
- 4월혁명청사편찬위원회, 『4월혁명청사』, 1960.
- 강효순, 『이계단 여사의 수기:4·19투사의 모친』, 도덕신문사, 1960.
- 구모룡, 「3·15시와 기억 투쟁」, 『서정과 현실』 제4호, 도서출판 작가, 2005.
- 구중서, 「4·19혁명과 한국문학」, 『한국문학과 역사의식』, 창작과비평사, 1985.
- 김경복, 「3·15의거와 민족저항시」, 『서정과 현실』 제4호, 도서출판 작가, 2005.
- 김동춘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 김윤식, 「4·19혁명에 대한 『지금 마산은』의 의의」,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을』, 3·15의거기념사업회 엮음, 불휘, 2001.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사』 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3.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재홍, 「현대시와 4·19혁명」, 『한국현대문학의 비극론』, 시와시학사, 1993.
- 김재희 엮음, 『靑春義血』, 광주:호남출판사, 1960.6.
- 나간채·정근식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 류 만, 『현대조선시문학연구(해방후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
- 맹문재, 「기록을 거울로 삼는 의로운 시들」, 『서정과 현실』 제4호, 도서출판 작가, 2005.
- 민영빈, 『4월의 영웅들』, 일신사, 1960.
-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 연구』, 깊은샘, 1998.
- 박식원 엮어지음, 『되찾자! 잃어버린 3·15』, 시원출판사, 1990.
- 박태순, 「4월혁명의 기폭제가 된 김주열의 시신」, 『역사비평』 1992년 봄.
- 변광도 엮음, 『民主革命 馬山 勝利의 記錄』, 마산일보사, 1960.7.
- 안동일·홍기범, 『奇蹟과 幻想』, 서울:영신문화사, 1960.6.
- 유종영, 「3·15마산의거의 배경과 경과」, 경남:도서출판 청운, 1983.
- 이 석, 「마산에서의 봄 -민주승리의 날에」, 『마산일보』 1960.4.28.
- 이강현 엮음, 『民主革命의 발자취』, 정음사, 1960.

- 이생세 엮음, 『事件 30年』, 경남매일신문사, 1977.
- 이학렬, 『향토마산의 어제와 오늘』, 경남:도서출판 청운, 1988.
- 이휘재 엮음, 『四月에 핀 꽃』, 서울:민중서관공무국, 1960.12.
- 임현영, 「4월혁명의 문학적 전개」, 『民族의 狀況과 文學思想』, 한길사, 1986.
- 조화영 엮음, 『四月革命鬪爭史』, 국제출판사, 1960.
- 주경철,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문학과지성사, 1999.
- 지현모, 『馬山の 魂』, 한국국사연구회, 1961.
- 최원식·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 편집부 엮음, 『4·19혁명론 II』, 일월서각, 1983.
- 학민사 편집실 엮음, 『四·一九의 民衆史』, 학민사, 1984.
- 현역일선기자동인 엮음, 『四月革命—學徒의 피와 勝利의 記錄』, 서울:
창원사, 1960.5.
- 『남조선 학생운동』,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 『남조선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함경남도:사회과학출판사, 1992.
- 『南朝鮮人民憤怒의 火焰』, 평양:외국문출판사, 1960.
- 『民權鬪爭—民主革命의 歷史的 記錄』, 『동방사진뉴스』 제180호, 서울:동방
사진뉴스사, 1960.5.
- 『민주혁명 승리의 기록』, 마산일보사, 1960.
- 『民主革命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서울:주간교육신문사, 1960.5.
- 『民主革命의 記錄』, 서울:동아일보사, 1960.6.
- 『민주혁명의 족적』, 정음사, 1960.
- 『四月革命 勝利의 記錄』, 대구:경북상공안내사, 1960.7.
- 『애국의 피로 물든 4월의 광장』,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1965.
- 『오늘의 馬山』, 오늘의마산편찬위원회, 1970.
- 『韓國革命과 基督教』, 영락교회20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66.
- 『血の四月』, 동경:조선청년사, 1960.8.

<Abstract>

Positive Study on the Masan Uprising
Represented in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Lee Soon-wook

This paper aimed at identify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asan Uprising and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April Revolution by carrying out a positive study on poems about the Masan Uprising out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created between March, 1960 and May, 1961.

First of all, the media of publishing poems about the Masan Uprising were overwhelmingly newspapers, such as 『Masan Ilbo』, 『Kookje Shinbo』, 『Busan Ilbo』, 『Kyunghyang Shinmun』, 『Donga Ilbo』, 『Joseon Ilbo』, 『Hankook Ilbo』. These poems published in newspapers or magazines put the finishing touches on the revolutionary literature on the back of the publications of various literary miscellanies, which marked the April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in North Korea during the so-called "Cheollima Period,"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revolutionary literature could not become widespread because the number of newspapers and magazines were highly limited. Major publication outlets included the weekly 『Munhak Shinmun』 equipped with mobility and public nature and the monthly magazine 『Joseon Munhak』, and poetry books covered the achievement of the Masan Uprising as well.

Second, the majority of creative authors in South Korea were

professional poets, followed by students or local residents who had firsthand experience on the struggle. It was they who published the most number of literary works in the currently well-known selections of revolutionary literature or in the literature section of newspapers at the time. On the contrary, in North Korea, professional poets were the key players in creating literary works on the Masan Uprising.

Third, the number of creative works by month was dominantly concentrated on April, May and June of 1960 in South Korea. The higher number of creative works in June can be explained by the publications of commemorative poetry books. As it became closer to the end of the year, the number of revolutionary poems decreased or they were even put on the back burner. Eventually, they received one-off attention during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April Revolution and have evolved into commemorative or ceremonial poems since 1961. The revolutionary literature, which used to be mass produced then, was too short-lived and transient to match the bloody price. The North Korean literature showed similar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works by month. Unlike South Korea, however, few selections of revolutionary literature were published. According to currently available resources, the only one is 『A Flag is fluttering in the South』 published in September, 1960 to effectively propagate and instigate "Liberation of South Korea" and "Throwing out Made in U.S.A." through children's literature.

Fourth, in terms of contents, the South Korean literature depicted the Masan Uprising as an extension of the April Revolution in the form of ceremonial or commemorative poems. Few poems deal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Uprising in detail or described the overall views, while most of them displayed passionate but standardized attitude

toward the implications of the Revolution. In contrast, the North Korean literature expressed a unique viewpoint of emphasizing the superiority of its regime. Mostly, literature works clearly suggested anti-American sentiment, revelation of corruptio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significance and activities of revolutionary groups, leading roles of revolutionaries and legitimacy of the struggle. It is notable that the North Korean literature did not focus on simply paying a tribute or expressing condolences like its counterpart because it was regarded not only as an opportunity to propagate the superio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but also as a general education course to enhance residents' revolutionary spirits, so that the criticism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Lee Seung-man's government in South Korea could be at the center.

- Key words: Masan, Masan Uprising, Revolutionary Literature, Testimonial Literature, South Korean Literature, North Korean Literature, Positivism, Memory, Oblivion, Memory Reconstruction, Memory Struggle